

## YTN FM 출연 의뢰서

수신 :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배경내 집행위원장

참조 :

발신 : 주현정PD 박정례작가

가. 방송명 : YTN FM 『수도권 투데이』

[ FM 94.5MHz, 월~금 오후 9:10~9:57 ]

YTN 손영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,

개편을 맞아 기존의 수도권 파트를에서

수도권투데이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되었습니다.

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며,

대안을 모색해 보는 수도권 시사정보프로그램입니다.

나. 코너일시 : 2011년 12월 19일 (월) 방송입니다.

생방송은 당일 오전 9시 13분경에 전화연결로 진행되며,

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.

다. 질문내용

오늘의 포커스 시간입니다.

지난 주 금요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.

밤 늦게까지 심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데요,

조금 전 9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.

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단체와

폐지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..

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?

오늘의 포커스 시간에는

학생인권조례 찬반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,

해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봅니다.

먼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배경내 집행위원장,  
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.

1-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 
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, 지금도 현장에 나가 계시죠?  
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?

2- 지난 9월에, 서울 시민 9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 
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됐는데요. 조례안 제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.  
학생인권조례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?  
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3-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 
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 
교내 집회 허용, 두발과 복장의 자유 같은 자율성이  
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여하기는 이른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?

4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 
하위법인 조례안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배치되는 것이다.  
학생지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남겨둬야 한다는 건데요?

5- 학생들의 성적 지향,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도  
뜨거운 쟁점인데요...  
성적지향 부분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다 되지 않은 부분인데..  
조례안에 명시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건데요

6- 조례안을 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어 있지만,  
그를 보장해주기 위한 의무와 책무 부분은 없다는 지적, 어떻게 보십니까?

7-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다시 심의에 들어갔는데요,  
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?  
논란이 되는 항목들이 삭제되거나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실 건가요?

(끝)